

# 무더위에 지친 나를 위한 문화충전

주말 '이열치열' 야외 문화행사 어떠세요  
 도깨비탈 제작·고싸움 '대촌동 잔치'  
 밤시간대로 옮긴 '프린지페스티벌'  
 불꽃·레이저쇼 금남로 빛의 향연  
 'ACC아트트레일러' 뮤지컬·풍선 공연

다가오는 주말, 이열치열로 야외에서 문화행사를 즐겨 보는 건 어떨까.  
 광주 남구 대촌지역의 공동체문화를 탐험, 놀이, 음식, 체험, 공연, 잔치 등으로 즐길 수 있는 '대촌에서 향약과 놀자'가 열린다.  
 이번행사는 '도깨비 잔치'를 주제로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28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대촌문화자원인 양과동정, 포춘사, 고싸움 놀이 전수관을 버스로 투어하는 '대촌마실탐험', 세시명절 체험과 공예작품을 만들어보는 '세시 놀이 마당', 옛 마을잔치를 재현하는 '잔치 마당' 등 크게 세 줄기로 열린다.  
 '대촌마실탐험'은 양과동정 장작판소리 공연 '대촌가', 공동체의 약속인 '규약체험', 극단 쟁이의 이머시브 공연 '고경명', 고싸움 놀이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세시놀이마당'에서는 도깨비를 주제로 한 도깨비 탈 만들기와 도깨비 그림대회 등이 준비돼 있다.  
 '잔치마당'에서는 신나는 연주와 함께 원숭이, 호랑이의 탈춤으로 구성된 장작그룹 노니의 '신호유회' 등이 펼쳐지고 도깨비가 좋아하는 타악을 관객과 함께 한바탕 즐길 수 있는 타악그룹 얼썬 '두두리'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매달 있는 세시명절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7월 세시명절인 '유두' 체험인 대나무 물총놀이와 밀전병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28일 오후 7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주 페스티벌은 여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빛의 향연'이 중심 테마를 이룬다. 작가 김관희의 '파이어스톤쇼'는 관객과 함께 불꽃을 만들고 불꽃의 아름다움을 스트리트댄스, 현대무용, 아크로바틱, 저글링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해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국내 레이저쇼의 선두주자이자 개척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퍼포먼스그룹 '사이닝레이저'는 레이저로 객석에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켜 관람객들이 직접 빛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레이저쇼를 선보인다.  
 이밖에 뮤지컬 걸라소팀의 '드림뮤지컬'의 '드림오브 뮤지컬', 라이브 포크송과 함께 코미디 광대극을 펼치는 '달팽이크루즈'의 '직장인 행복 찾기', 광주프린지학교 'HUT'의 '컬러피플들의 좌충우돌 세상사' 등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3-04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ACC)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ACC 아트 트레일러'와 '아시아 컬처마켓'을 추가로 개최한다.  
 두 행사는 당초 6월까지만 운영하고 폭염과 장마를 피해 9월부터 다시 운영될 계획이었지만 상반기 행사 동안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7월 추가 운영이 결정됐다.  
 'ACC 아트트레일러'는 K-POP, 인형극, 제즈, 댄스, 비보잉, 마술 등 다양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밀폐된 공간이 아닌 광장에서 선보이는 야외 행사다.  
 이번엔 열리는 ACC 아트트레일러는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야외 뮤지컬 공연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27일 오후 7시에는 '영화 속 뮤지컬 콘서트, 맘마리츠(샬컴퍼니)'가 펼쳐지며 28일 오후 7시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신기한 버블&별론 퍼포먼스(라운기락)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대장가요 및 뮤지컬 명곡을 새로운 구성으로 편곡해 선보이는 '골라먹는 뮤지컬 레시피(씨소 뮤지컬 컴퍼니)'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아시아 컬처마켓'은 ACC 하늘마당 앞에서 장소를 아시아문화광장으로 옮겨 'ACC 아트트레일러'와 함께 진행된다. 문의 062-601-4025.  
 /전문기자 ejf621@kwangju.co.kr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파이어스톤쇼'



'ACC 아트트레일러' 공연 모습.

## 깊은 상처서도 새살 돋게 하는 마법의 '호호'

'시산맥 시선' 김현주 '好好 해줄게'  
 "한걸음 늦게, 두 번째 시집을 산재한다. 따뜻한 노래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부르고 싶다."  
 계간 '시산맥'의 제18차 감성기획시선 공모 당선 시집인 김현주의 작품집 '好好 해줄게' (사진)가 발간됐다.  
 시집에는 '모래 이야기', '거미 여자', '아픈 곳이 중심이다', '산비둘기의 밥그릇', '사막의 눈물' 등 모두 60여 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오랫동안 창작에 천착해왔다는 느낌이 들 만큼 시에는 '마음병을 앓는 사람' 특유의 이미지와 감성이 깃들어 있다.



"마법 같은 엄마의 호호./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다// 엄마의 호, 호는 울컥한 슬픔을 지냈다/그 품은 너무나 커서 세상의 모든 이들을 무사한다// 둥근 봉분에 얹었던 한 사람/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늙은 당신도, 지금 엄마의 호호가 필요한 것이다." ('好好 해줄게' 중에서)  
 표제시 '好好 해줄게'는 상처에 대한 치유와 위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린 시절 누

구나 있었을 법한 경험을 화자는 보편적 감성으로 풀어낸다. "好好"과 오버랩되는 의미는 '엄마'의 원형적 사랑이다. "세상의 모든 이들을 무사"하게 하는 절대성 그 자체다.  
 유정이 시인은 해설에서 "시인의 시는 '호호'해 주는 어미의 마음으로 상처와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며 난바다를 유유히 건너가는 '이카로스의 바람 날개'와 같은 것"이라며 "자웅동체의 생명체처럼 시인은 질문과 답을 한몸에 담고 시의 운명, 그 원형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고 평한다.  
 한편 김현주 시인은 2007년 '시선'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페르시아인 석류'를 펴냈다. 2016년 숲속의 시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문화읽기



오성완  
연극 연출가  
극단 푸른연극마을 대표

오늘 아침도 습관처럼 통장 잔고를 살펴보았네. 20, 25, 26, 28, 1, 5... 몇 년 째 지워버리고 싶은 숫자들. 문득, 며칠 전 심각하게 되물던 단원의 말이 떠올랐네. "왜 소극장을 하려고 하느냐". 답배를 피워 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네. "그래, 왜, 이리 힘겨워하면서!" 그러나 딱히 답을 구하지 못했네. 자네는 기억하겠지. 늘 입버릇처럼 그냥 '숙명'이라고. 그 숙명의 길 위에 무슨 이유 같은 게 필요하겠냐고 힘주어 말했던 날들을 말일세.  
 하지만 K, 자네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또다시 가슴 속에서 디딜고 올라오는 무거운 한숨을 어찌할 수는 없었어니. 생각해보면 그 시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연극인은 어렵다. 따따라는 가난을 숙명으로 때받치고 살아야 한다는 말들이 왜 그리고 가슴을

이 문화정책들을 쏟아냈어. 그런데 그 화려한 정책들을 대하는 가슴 한편이 허해지는 느낌은 나 혼자만의 느낌이 있었을까. 내가 바로 현장 연극인, 예술인인데, 아니, 연극이 내 직업이고 소극장이 내 일터인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네. 그 새로운 일자리는 무엇일까? 결국은 일자리로 인정받지 못한 곳에서 인정받지 못한 시간들을 허

## K형,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게!'

뜨겁게 만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감성적 판단이었음이다. 그럼에도 그 어리석은 감성적 판단이 어찌면 35년 동안 쉬지 않고 무대 위의 삶을 지탱시켜왔으리라 생각하면 고마운(?) 감정이었음에 고마워해야 할까?  
 K, 우리 극단(푸른연극마을)은 2013년도부터 지역의 소극장을 운영하는 극단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해마다 상호교류 및 동시다발적인 소극장 축제를 열고 있네. 처음 3년간은 회비를 모아 축제를 열다가 적자폭이 커 지원사업에 공모에 참여해 지원금의 혜택 속에서 축제에 참여할 수가 있었지. 그러나 모 지역의 극단 대표가 '미투'의 사슬에 걸려버렸고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야 말았네. 결국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을 도출해냈고 이제 9월 3일부터 광주에서의 소극장 축제를 준비 중에 있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무대라면서 35도를 넘나드는 이 가마 솔더위 속에서 모두들 숙명의 공간인 소극장 무대로 향했지.  
 K, 우리 연극에 희망은 있는가? 아니, 내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희망이란 놈은 무슨 빛깔, 무슨 형태를 갖춰 나타날 것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 지역도 많은 단체장들이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지. 그리고 어김없

비했던 말일까. 설마, 그건 아니겠지?  
 K, 오늘 극단을 만들어 보겠노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후배 녀석을 만났다네. 가진 것은 오직 뜨거운 열정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녀석을 바라보면서 얼핏 고개 숙여있던 나 자신의 열정이 슬며시 고개를 내미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네. 그래, 무대야, 딱치고 무대로 가! 언제는 힘든 적이 없었다고 이리도 정열대는 모습이라니...  
 K! 오늘 자네가 그리워졌은 이 땅 위에 자네가 무대 위에 쏟아냈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열정이 너무도 그리웠음인지도 모르겠네. 이제 자네도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나. 그 시절에 목청껏 외쳤던 우리들의 구호,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게!"를 외치며.  
 지금, 이 땅의 연극은 K 자네의 그 구호소리가 절실할 때인지도 모르겠네. 부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그 영혼의 날개를 달고 모든 힘든 것에 지쳐있는 우리들의 무대로 돌아와 주게! 이제 나도 지쳤나보네. 지친 내 손목을 꼭 좀 붙잡아 주게나. 휘청이는 우리의 연극, 내 영혼의 다리를 붙들어 주게. 2018년 뜨거운 7월. 오성완 띄움.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회선  
**1566-1394** ◀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go.kr>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